

20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성장 通 일지



NEXT STORY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성장 通 일지

**NEXT
STORY**

목차

NEXT 사업소개

04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0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01	120일간의 프랑스, 우리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	10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김하영	
02	Una Flor gigante de Corea	14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김희영	
03	진도브리, 폴란드!	18
	주폴란드한국문화원 박세현	
04	헝가리에서 깨달은 ‘문화’의 의미	22
	주헝가리한국문화원 박효은	
05	꼬레아노, 에르마노, 그리고 메히까노	26
	주멕시코한국문화원 송동호	

06	시아를 넓힌 폴란드에서의 4개월	30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이유진	
07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34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정희영	
08	멕시코에서의 4개월, 전반적인 성장의 기회	38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조은지	
09	수중 지표로 지도 그리기	42
	드 아펠 아트센터 이미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01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빛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실습경험	48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채영	
02	국제문화교류 실습, 미래의 탄탄한 기반이 되다!	5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박주영	
03	20년의 전통과 새로운 1년으로 이뤄진 소리의 만남: 전주세계소리축제	56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서영	
01	특별한 곳이 아닌 즐거운 곳을, 공감의 문화와 함께	6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수빈	
02	영화제 인턴이 영화제를 직접 기획하기까지	66
	강릉국제영화제 조아란	

NEXT

NEXT EXPERT TRAINING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Next EXpert Training, NEXT)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기획 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해외파견, 집중양성과정, 프로젝트 지원 등 신진인력에서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Academy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는 온라인 아카데미와 워크숍, 현장중사자와의 네트워킹 컨퍼런스를 포함한 오프라인 아카데미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0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NEXT Intensive Training Program

국제적인 수준의 국내 대표 축제들과 협력하여 신진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집중양성과정 참가자들은 국제문화교류 이론교육부터 현장실습,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합니다.

0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Placement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력단계별 해외파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행사 인턴십, 재외한국문화원 공동 프로젝트 기획, 해외 문화 전문기관 펠로우십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 지원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04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NEXT Follow-up Support

기존 NEXT 사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강연

22. 11. 11.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기관 정보, 최신 동향

심지연(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워크숍

22. 11. 18.

창작·기획·공공 등 분야별 현장종사자의
주요활동 공유, 직무 관련 Q&A, 네트워킹

창작 이진엽(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 연출)

기획 심현주(서울거리예술축제2022 프로그래머,
안단테 아츠 공동대표)

공공및기관 이연경(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기반팀 팀장)

모더레이터 김상미((주)블루버드씨 대표)

컨퍼런스

22. 11. 25.

문화예술 접근성 확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이해 및 국내외 동향

국내발제 전강희(공연평론가, 드라마터그)

해외발제 Caroline Bowditch(캐롤라인 보우디치)(Arts Access Victoria 대표)

패널 (기획및제작) 김옥경(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창작) 정진새(극단 문 연출가)

(예술) 신강수(극단 보편적극단, 극단 다빈나오 배우)

모더레이터 전강희(공연평론가, 드라마터그)



국제
문화
교류

전문
인력
해외
파견

120일간의 프랑스,

우리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김하영

예술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게 된 이후 프랑스의 풍부한 문화예술 기관들은 나에게 있어 오랜 동경의 대상이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후 예술학과에 진학하여 현대미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불어불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프랑스어를 익히고 여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갔다. 그리고 예술학 석사 과정 수료를 마친 뒤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을 통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으로서의 4개월간 파견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실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지만 프랑스 현지에 도착해서 본 파리의 한국문화원은 우리의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파견된 직후 바로 투입된 문화원 프로그램은 <2022 한국관광문화대전 Taste Korea! - 불교문화 스페셜>의 일환으로 개최된 <연등회> 특별전과 연계 <비디오 맵핑 미디어 전시>였다. <연등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된 이 전시는 총 방문자수 5만 8천 명이라는 문화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전시장 내를 밝히는 아름다운 연등 공예작품들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맵핑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면서 10대부터 장노년층까지 전 세대에 걸친 현지인들이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도록 이끌었다. 파견기간 동안 직접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과 전시 연계 아틀리에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의 현지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수줍게 다가와 서툰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네는 학생들부터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감상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120일간의 프랑스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느끼게 했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방문한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입지는 이전과 사뭇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파리 시내 어디에서나 K-Pop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스트리트푸드부터 디저트까지 찾지 못할 K-Food가 없을 정도였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
Centre Culturel Coréen à Paris

소재지

파리 Paris, France

설립연도

1980

홈페이지

<https://www.coree-culture.org/>

파견자 소개

김하영

cocohayoungk@gmail.com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불어불문학과
복수전공 후 동대학원 예술학 수료.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전시 사업 업무를
지원하였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시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특히 향후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예술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획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파리 한국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여전히 상젤리제 거리에 긴 줄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클로즈업 페스티벌: 국제도시건축영화제>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한국영화를 집중 조명한 특별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기생충 이후 한국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프랑스 내 주요 예술 박람회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했다. 특히 <FIAC>을 대체하여 올해 처음 개최된 <아트바젤 파리+>에서는 이우환, 양혜규, 하종현, 함경아 등 대표적인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프랑스 최초의 아시아 현대미술 아트페어인 <아시아 나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제 16회 리옹 현대미술 비엔날레>에서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지원 협업 아래 유일한 한국 작가로 탁영준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게스트 큐레이터로 초청된 샘 바르다우일(Sam Bardaouil)과 틸 펠라스(Till Fellrath)에 의해 “연약함 선언(manifesto of fragility)”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는데 특히 탁영준의 영상 작품 <Wish You a Lovely Sunday>(2021)는 기독교와 쿼어 공동체 사이의 일종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공존을 드러냈다.



<연등회> 특별전 포스터
*출처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프랑스 지방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예술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프랑스는 특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 파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지방 도시에도 훌륭한 문화예술 기관들을 조성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마르세유 뮤섬(MuCEM), 니스 근현대미술관(MAMAC), 생테티엔 근현대미술관(MAMC), 님 까레 다르(Carré d'Art), 디종 르 콩소르시움(Le Consortium)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짧은 파견기간 동안 모든 곳을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아를(Arles)이었다. 일명 반 고흐의 마을로 유명한 이 도시에는 아를 빈센트 반 고흐 재단(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트센터가 세워져 있다. 그중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아를 루마 아트센터(LUMA Arles)의 야외 공간에는 2021년 6월부터 구정아 작가의 대형 〈스케이트파크〉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유수의 스타 작가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4월에는 일본 나오히라 섬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이우환 미술관에 해당하는 이우환 아를(Lee Ufan Arles)이 개관하기도 하였다.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에 의해 개조된 16~18세기 건축물 호텔 베르농(Hôtel Vernon)에 자리잡은 이우환 아를은 조각부터 회화까지 풍부한 이우환의 작품세계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인터뷰에서 이우환 아를은 한 개인의 미술관이 아니라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전초 기지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재벌 작가 이배의 말처럼 이곳은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 17회 파리 한국영화제〉 인파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하영

〈나전, 시대를 초월한 빛〉 단체방문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하영



120일간의 프랑스를 돌아해보면 이번 파견은 문화원 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과 외부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지 한국 문화 예술의 현황을 깊이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미술, 공연, 음악, 패션 등 분야를 뛰어넘어 각기 다른 모양의 꿈을 가지고 현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고무적인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 해당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미술과 국제교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앞으로 예정된 주요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연동회〉 특별전 전경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하영



Una Flor gigante de Corea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김희영

세르반티노 축제 멕시코시티 본부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
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희영



멕시코의 매력은 끝이 없다. 50일을 계획하고 떠난 여행이 어느덧 200일을 넘기고 있었다. 멕시코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해 귀국행 비행기 티켓을 버리고 장기 거주를 하던 어느 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파견 전문인력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다. 멕시코에서 세계적인 예술축제가 열리며, 특히나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멕시코에 거주 중이고, 미술이론을 공부하며 문화교류에 뜻을 품고 있던 나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내가 멕시코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인 과나후아토(Guanajuato)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지원하였다. 이제 막 학사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나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았고, 기관견이나 타지원자에 비해 경력 면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 시간과 멕시코 시간을 넘나드는 면접을 보며 의지와 역량을 어필하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세르반티노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FIC)는 멕시코시티 북부에 위치한 과나후아토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 규모의 예술축제이다. 또한, 이 축제는 음악, 오페라, 연극, 무용, 조형 예술, 문학, 시청각 미디어와 같은 공연 예술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축제이다. 세르반티노는 멕시코 문화부 소속의 기관이며 직원들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의 개념이다. 기본적으로는 멕시코 시티(Mexico City)에 베이스를 두고 일하며, 축제를 앞두고 과나후아토로 이동한다. 축제가 시작되면 과나후아토에 운영본부가 세워지고, 과나후아토 지역 공무원들이 축제에 투입된다. 파견 기간 4개월 중 7~9월 3개월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세르반티노 본부에서, 축제가 열리는 달인 10월은 과나후아토에서 근무하였다.

나는 세르반티노 사무실의 다양한 부서 중 대외협력 및 홍보부(Difusion y Relaciones Publicas)에 배정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해당 부서는 주로 대외 협력관계와 홍보 등 디지털 업무를 담당한다. 부서에 배정되어 가장 먼저 맡은 일은 세르반티노 공식 홈페이지의 영문 번역과 감수였다.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에는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150개 그룹, 약 320명의 예술가가 축제에 참여하였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축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는 축제 일정과 참여자에 대한 소개가 스페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아티스트 소개문은 아티스트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관에서 간단한 교정을 거쳐 완성된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영)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FIC)

소재지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설립연도

1953

홈페이지

<https://festivalcervantino.gob.mx>

파견자 소개

김희영

younggml113@gmail.com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학사
과정 수료 후, 2022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진인력에
선정되어 멕시코 문화부소속
세르반티노에서 축제 지원 및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세계 다양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이 많아 폴리네시아 문양의
기원, 멕시코 벽화운동, 조선시대
책가도의 문양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사진집 <From Thai>(2020)을
출간하였다. 멕시코에 거주하며 약
20개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멕시코를 한국에 소개하는
사진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소개는 곧 축제의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비스페인어권 화자가 영문 소개문을 읽었을 때, 글이 비문이거나 맞춤법 오류가 많다면 축제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티스트의 영문 소개 글을 교열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좋은 번역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다 보니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많았다. 이럴 때는 아티스트의 활동을 찾아보거나, 소개된 다른 글을 읽는 등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후 이들의 예술관과 업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장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번역하였다.

홈페이지 소개글 외에도 포스터에 실리는 각종 공연 소개 글, 행사 안내, 공연 티켓 구매 안내 등 영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의 번역을 담당하였다. 한국 아티스트와 공연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한국어 메일의 작성도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멕시코 대중들에게 한국 대표 작가를 소개하는 업무도 있었다. 한국 문학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도록 고전작가부터 현대 작가, 시인과 소설가 등 다양한 배경의 작가를 선정하였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저작을 소개하였다. 이 내용은 카드 뉴스로 제작되어 축제 기간 세르반티노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다. 문학사와 함께 한국 미술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1세기, 삼국시대부터 1960년 전후(戰後) 현대미술까지,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 시기별 대표작품을 소개하며 한국미술을 멕시코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기관에서 주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처음 해보는 스페인어 번역 일도 흥미로웠지만, 직접 주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지원 당시 기획했던 <한국홍보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멕시코 내에서는 세르반티노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많은 사람이 이를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빈국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 대부분 그런 축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멕시코에서 좋은 기회로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 세르반티노 축제를 홍보하고 싶었다. 축제에 한국 홍보로 배정된 예산이 없었으므로, 예산 없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했다. 온라인과 SNS를 위주로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우리 부서의 디지털 담당 매니저에게 이야기했더니 멋진 아이디어라며 좋아했다.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공식이미지
*출처 :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공식 홈페이지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사진
*출처 :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공식 홈페이지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PPT를 준비하여 부서 대표에게 기획 의도, 진행 방법, 예상 성과 등을 스페인어로 발표하여 진행 허가를 맡았다. 회사에서 나의 기획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험도 처음인데, 스페인어로 하려 하니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이 과정 끝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제50회 세르반티노 한국 공식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세르반티노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 아티스트 소개, 한국 공연/전시 소개글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포스팅하였다. 또한 세르반티노에서 직접 인터뷰하지 않은 한국작가 지민석과 안윤모의 인터뷰를 계획했다.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안윤모 작가님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했다. 질문지 작성, 인터뷰 진행, 녹취본 스크립트 작성, 인터뷰 기사 본문 작성, 영어 번역까지 모두 혼자 담당하였다. 대학 시절 문화예술 잡지에서 취재 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경험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는 계기였다.

마침내 10월이 찾아오고 멕시코시티 동료들과 함께 축제가 열리는 과나후아토로 이동하였다. 행사 초기 주 업무는 한국에서 오는 게스트들의 행사 업무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일이었다. 장관, 대사, 공연 아티스트 등 행사 주요 인물 입출국 스케줄과 공항 픽업에 관련한 사항을 체크하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주요 인사들은 축제 하루 전날인 11일부터 과나후아토를 찾았다. 행사 중반부터는 세르반티노 내부 행사를 보조하였다. 세르반티노 본부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공연 아티스트들의 사인이 담긴 기념 책자를 계획하였다. 또한, 공연 전후로 무대 백스테이지에 찾아가 책자에 아티스트들의 서명을 받는 일을 하였다. 도시 전체에 공연장이 있고, 여러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시내를 동분서주하였다. 바쁜 일정이지만 아티스트들의 축하 서명으로 50주년 책자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과나후아토는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과 방문객들로 잠들지 않는 도시였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구 저 반대편에 19일간 밤낮으로 잠들지 않고 축제를 여는 도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곳이다. 거리는 악사와 사람으로 가득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도시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며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는 10월의 과나후아토는 잊을 수 없는 도시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현지 직원들은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막 대학을 졸업한 나의 또래였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은 하는 일이 달라도 마음은 통했다. 행사 운영요원으로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모두 무료입장으로 관람할 수 있었고, 백스테이지에서 아티스트와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다. 물론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끝없는 스탠바이, 새벽 2시까지 도시를 뛰어다녀야하는 일정, 미숙한 언어 실력으로 인해 느꼈던 소외감, 동료들과 다른 업무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 등 크고 작은 일로 밝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예술로 하나 되어 밤낮을 함께 즐긴 과나후아토에서의 시간은 내 삶에서 오래오래 기억될, 빛나는 삶의 한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 과나후아토와 세르반티노 가족들 모두에게 고맙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사업 참여를 통해 멕시코에서 세계적인 축제의 일부분이 되어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세르반티노 스태프
단체사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희영



03

진도브리, 폴란드!

주폴란드한국문화원
박세현

폴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유럽연합 중 한 국가, 내가 아는 것은 그 정도가 전부였다. 파견이 종료된 지금 돌아해보면 폴란드는 잘 알지 못했던 나라이지만, 내가 무언가에 끌려 운명처럼 폴란드를 신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연히 보게 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NEXT 해외파견 공고를 보고 주저 없이 폴란드라는 국가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운명처럼 느껴진다.

사실, 이 선택은 지난 나의 아쉬움들이 모여 만들어낸 운명이다.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였던 나이에 문화행정, 축제, 공연, 전시, 도시재생 등 학교에서 교과목 혹은 주제로 배웠던 부분들을 경험을 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도전해 보지 않은 분야가 남아있었다. 바로 '국제교류' 분야였다. 나는 항상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주저 없이 지원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경험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경험해보았기에 후회는 없다고 자부한다. 공연부터 전시, 영화, 초청행사까지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며, 파견생인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직접 사업기획과 운영을 해 볼 수 있었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 Poland

소재지

바르샤바 Warszawa, Poland

설립연도

2010

홈페이지

<https://pl.korean-culture.org/ko>

파견자 소개

박세현

janesopy@naver.com
학부에서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고 졸업 후, 줄곧 문화예술행정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2022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NEXT 해외파견 사업 참여자로 7월부터 11월까지 주폴란드한국문화원 파견 실습을 거쳤다.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기관, 예술단체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문화교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자 한다.

가장 처음 주어진 업무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 - 서민진 밴드> 공연 현장 운영보조였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폴란드의 유명 문화 예술 축제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하여 뮤지컬 마리 퀴리 팀을 공식 초청했다. 7월 4일 뮤지컬 마리 퀴리 팀이 무대에 오른 이후 18일, 서민진밴드가 무대에 올라 그 열기를 이어갔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민요를 재즈로 재해석하여 선보인 서민진밴드의 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폴란드와 한국 아티스트가 온라인으로 함께 한국 민요인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재해석하고 폴란드 민요를 함께 작업한 스토리는 두 나라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축제의 주 관객층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이었다. 문화예술 향유가 일부 특정 층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클래식공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22회 뮤직가든스페스티벌 - 서민진밴드> 워크숍 진행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세현



〈한국으로의 초대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세현

이후, 8월 한 달은 〈한국관광사진전, 한국으로의 초대(Zaproszenie do Korei)〉전을 기획 및 운영하였다. 학교를 다니며 전시기획을 경험해보았으나, 해외에서 작품 발주와 전시서문 작성 등의 업무를 영어/폴란드어로 작성해야한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졌다. 또, 대상이 폴란드 현지인들이었기에 초반에는 전시 기획 및 운영 방향을 잡기 어려웠다. 따라서 먼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였던 관광사진전을 리서치한 후, 그 곳의 전시 접근 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후 타 갤러리, 미술관의 사진전을 찾아보며 전시관 배치에 대한 레퍼런스를 얻었다. 리서치를 통해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전반적인 전시 구성과 콘셉트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전시관 별로 세분화된 구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시가 운영된 약 2주의 시간동안 200명이 훌쩍 넘는 관람객이 문화원을 방문하였다. 또, 도슨트를 직접 운영하며 전시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을 알아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가족과 함께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전시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에는 문화원에서 가장 큰 행사인 〈바르샤바 한국영화제〉가 진행되었던 달이다. 올해 영화제는 바르샤바(Warszawa)뿐만 아니라 브로츠와프(Wroclaw)에서도 진행되어 더 많은 관람객들을 만났다. 영화제는 〈최신개봉작〉, 〈올해의 발견〉, 〈애니메이션〉, 〈에릭 오(Erick Oh) 회고전〉, 〈마동석 회고전〉 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영화들이 선보였다. 비단 국내에서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이 선정되어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주제가 담긴 영화를 선보였기에 더욱 인상 깊었다. 올해 영화제에서 영화제 전, 후 콘텐츠제작과 관람객 대상 이벤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영화제 운영기간 동안 게릴라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 등 총 10개 이벤트와 42건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영화제 운영 8일 동안 함께 현지 스태프들과 현장을 운영했던 기억이다. 함께 근무하며 영화제 현장운영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에 서로 각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였던 경험이 가장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10월에는 한국문화의 달로 문학, 체험행사, 전시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민속박물관의 〈한국문화상자〉 전시와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랑방, 안방, 그리고 한복 상자까지 총 3가지 상자로 이루어진 〈한국문화상자〉는 아래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하는 민속박물관같이 느껴졌다. 한국 민속박물관의 전시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실물과 같은 크기로 복제한 전시품은 폴란드 현지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직접 엿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오신 연구사의 사전 교육을 통해 민속상자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한복이나 물건에 담긴 모양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가족 대상 특별프로그램 중 〈가훈쓰기〉를 기획하여 가훈에 대한 의미, 그 내용에 대한 PPT와 스태프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였고 약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훈의 의미와 상징을 알아보고 직접 참여한 가족이 함께 적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특별했던 올해 여름과 겨울. 주폴란드한국문화원 파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련 경험을 쌓은 기억은 앞으로 두고두고 힘들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회상될 것 같다. 파견이 종료된 시점, 미래의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폴란드에서의 활동들은 분명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큰 기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으로의 초대전〉 내 관람객 참여존에 부착된 방명록습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세현



〈한국문화의 달 - 에코백 드로잉〉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세현

04

헝가리에서 깨달은

'문화'의 의미

주헝가리한국문화원
박효은

어려서부터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학부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 예술 관련 경험 및 경력을 쌓아오던 내게 이번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은 너무나 매력적인 기회였다.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 예술은 대상을 가장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학부 시절 동아리에서 문학이라는 예술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며 타인의 진심에 한 발짝 다가서며 타인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기도 했다. 그 이후로 전시회 및 영화제에서 경험을 쌓고, 직접 영화도 만들어 보며 나 자신에게 숨겨진 새로운 모습을 하나 둘씩 발견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내게 있어 '문화'란 더 나은 나를 발견하는 '변곡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내게 타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면서, 헝가리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도저히 놓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으로서의 주 파견 업무 내용은 <제36회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 운영 지원이었다. 2022년에 진행되는 <제36회 헝가리 국가민속축제>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우선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는 매년 헝가리 국경일을 기념해 부다성(Buda Castle)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2019년 유네스코 국가 무형문화유산 최고 보호사례로 등재되었으며 유럽 전 지역에서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민속·전통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행사에 앞서 가장 처음에는, 해당 축제에서 관객들에게 안내될 리플릿을 제작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목차를 만들고 콘텐츠도 채워가면서 출판 과정에 대해서도 익히고, 행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여 모두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하였고, 행사 참여 예술인들이 이용할 숙소 및 차량과 관련하여 헝가리 현지 업체와 협업하며 국제 업무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다보니 축제 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공항에서부터 약 서른 명의 참여 예술가와 인사를 나누고, 차량을 안내하고 숙소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사전에 제작한 부다페스트(Budapest) 개요와 행사 일정 자료를 나눠 드리는 등 의전 업무 역시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원에서 공예 장인이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역하여 헝가리 시민들로 하여금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왔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헝가리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 Hungary

소재지

부다페스트 Budapest, Hungary

설립연도

2012

홈페이지

<https://hungary.korean-culture.org/ko>

파견자 소개

박효은

yobrevir@naver.com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등의 행사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 한국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자 지원했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4개월 간의 빛나는 시간을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낙화장 부스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효은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이번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한국 전통 예술뿐만 아니라 한식 및 한복 등 다채로운 한국의 모습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크게 공예와 공연을 선보였다.

먼저 공예 부스에서는 낙화장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인 김영조 장인, 단청분야 서울시 무형문화재 김수연 장인 등이 참여하여 조각보, 낙화장, 단청, 민화, 한글 서예, 지승 공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나아가 맹옥재와 한주는 도예가는 한국의 전통 도자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생활도자를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민화를 직접 그려보고, 지승으로 브로치를 만들거나 접시에 자개를 붙이는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예 부스에는 본인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쓴 서예 작품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나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전 등록을 돕고, 체험 시간 동안 통역도 하였다.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양이 정해져 있어, 아쉽지만 인원 통제를 하기도 하였다. 엄청난 무더위였음에도 오랜 시간 기다려서라도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열기를 느끼며,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연 역시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모든 공연가들이 함께한 길놀이, 극단 꼭두광대의 탈 행진, 타고의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부채춤 등 관객들은 함께 어깨를 들썩이고 장단을 맞추고 환호했으며, 연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다. 공연이 끝나고 온몸이 벌겋게 익은 공연 예술인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연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진 꿈과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한복 소개 행사에는 2010년 헝가리 대통령을 역임한 슈미트 팔(Schmitt Pál)의 부인 카탈린 마크라이(Katalin Makray) 여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여사는 한복 쇼 무대에 올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한복은 헝가리의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색과 문양과 소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한복을 입으면 모두들 우아해지고 기품 있어 보인다”라고 하며 한복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뜻깊었던 순간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 했던 헝가리 시민들을 만났을 때였다. 부스에서 행사를 안내하는 내게 여러 현지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생활, 한국에서의 취업 등 저마다 다양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첫발을 딛고자 했다.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나 역시 단순히 업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의 한국 생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안내했다.

8월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는 정말로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3일 남짓한 축제를 위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골몰하던 순간들, 땀을 흘리던 순간들,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지승공예 부스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효은

길놀이 퍼레이드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효은



20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성장 통 일지

또한 전체적으로 이번 인턴십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언제나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큰 문제로 다가왔다. 내가 살던 부산에서만 해도 꽤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열리지만, 연령대나 거주지에 따라 사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있고, 가끔은 소위 말하는 ‘티켓팅’ 등의 행사 참여 방법에 정보 취약 계층은 적응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장애 유무에 따라 이것은 더욱 심해진다. 물론 배리어프리 예술 활동이 이제 막 늘어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해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서 정비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시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 행사의 비중이 크기도 하다. 그에 앞서 전시회 등의 행사는 아주 외곽의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참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접근성 격차가, 내게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 직종에 발을 담그기에 앞서 풀어야 할 부채처럼 느껴졌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국문화원의 행사를 경험하며 풀어나갈 수 있었다. 단순히 시청각에 편향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직접 만지거나 먹으며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용이한 접근성을 위하여 부다페스트의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행사들, 다양한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SNS뿐만 아니라 KTV 제보 및 식당과 가게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며 발로 뛰던 오프라인 홍보 방법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말하자면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한 것이다.

일을 하던 중에 직속 팀장님께서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이제 그 질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길놀이 퍼레이드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박효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05

꼬레아노, 에르마노, 그리고 메히까노*

주멕시코한국문화원
송동호

*2018년 월드컵 당시,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를 16강에 진출시킨 조별 예선 이후 한때 멕시코에서 “Coreano, hermano, ya eres mexicano (한국인, 우리의 형제여 당신은 이미 멕시코인입니다)”라는 노래가 유행했었다. 현재의 한국문화 파급력과 그 결과를 현재진행형으로 잘 보여주는 멕시코의 모습이 노래 가사와 어울린다 생각하여 에세이 제목에 인용했다.

교환학생으로 멕시코에서 1년 여간 수학하며 스페인어와 멕시코 문화에 빠져 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원치 않는 귀국길에 올랐었다. 여행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떠돌던 과거를 뒤로 하고 한국에서 방황하다 나름의 진로를 정하고 잠시 여유가 생겨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2021년 말, 다시 멕시코시티(Mexico City)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K-POP 커버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는데도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어 그들의 활동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홍보하고 무료로 그룹별로 스냅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해주었고 멕시코시티 커버댄스 그룹끼리 벌이는 자체 경연대회에 메인 사진가자로 초청받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멕시코 내의 케이팝 시장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주멕시코한국문화원에서 매년 케이팝 커버댄스 경연대회를 주최하며 여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모집 공고를 발견했고, 한국문화원을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아르헨티나(Argentina)의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두 곳에 한국문화원이 위치해 있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현재 멕시코 내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멕시코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을 맞는 2012년에 멕시코시티의 중심부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한국 배우와 가수를 좋아하는 팬클럽이 세계 각국에서 생겨나고 있고, 특히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수요의 증대에 맞춰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문화원 내 한글 교실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한글, 국악, 그리고 한국 전통무용 등 우리 문화 전반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소개 영상물 혹은 영화 같은 대중매체들이 상시 방영되는 멀티미디어실과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무형문화재들이 제공한 물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멕시코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 Mexico

소재지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설립연도
2012

홈페이지
<https://mexico.korean-culture.org/ko>

파견자 소개

송동호
kemal0510@gmail.com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을 전공하였고, 2022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에 선정되어 주멕시코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문화예술 교류 업무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케이팝을 필두로 한 한국-멕시코의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멕시코 현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기획하며,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특히 2022년은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다. 그리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하여 1년간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인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국가로 멕시코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해 보다 비교적 많은 행사가 기획되었다. 멕시코 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문화원 인턴십을 시작하자마자 전시 및 공연 기획 그리고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해외통신원에 멕시코 내의 정치, 경제 동향을 다룬 현지 언론기사 혹은 멕시코 주요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번역했고, 해외에서 비취지는 한국의 모습을 매일 모니터링 해가며 잘못된 내용의 오보성 기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문화원 내 전시공간 및 강당과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오프닝을 위한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리고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 한국 현대미술 <태평양을 건너서> 준비와 <쿠바 한국문화 돛돔제>에 참석했던 경기민요 소리꾼 박정미와 대금 연주자 유석균의 멕시코 현지 체류 기회를 활용하여 진행된 <국악 아카데미 강좌> 준비를 도왔다. 또한 수강생 모집 공고에 700여명의 지원자들이 신청을 한 최근 각광 받는 한류 콘텐츠인 <K-Beauty 강좌> 준비 및 사진 촬영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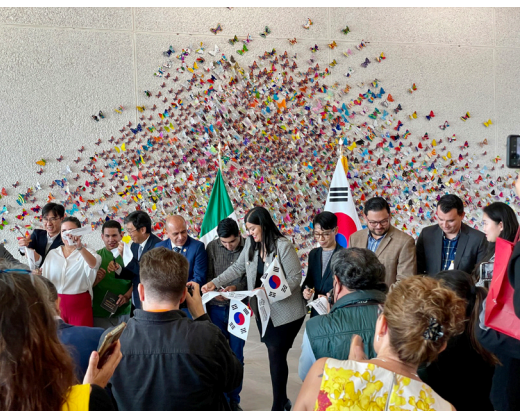


K-Beauty 강좌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
교류 전문인력 양
성사업 참가자
송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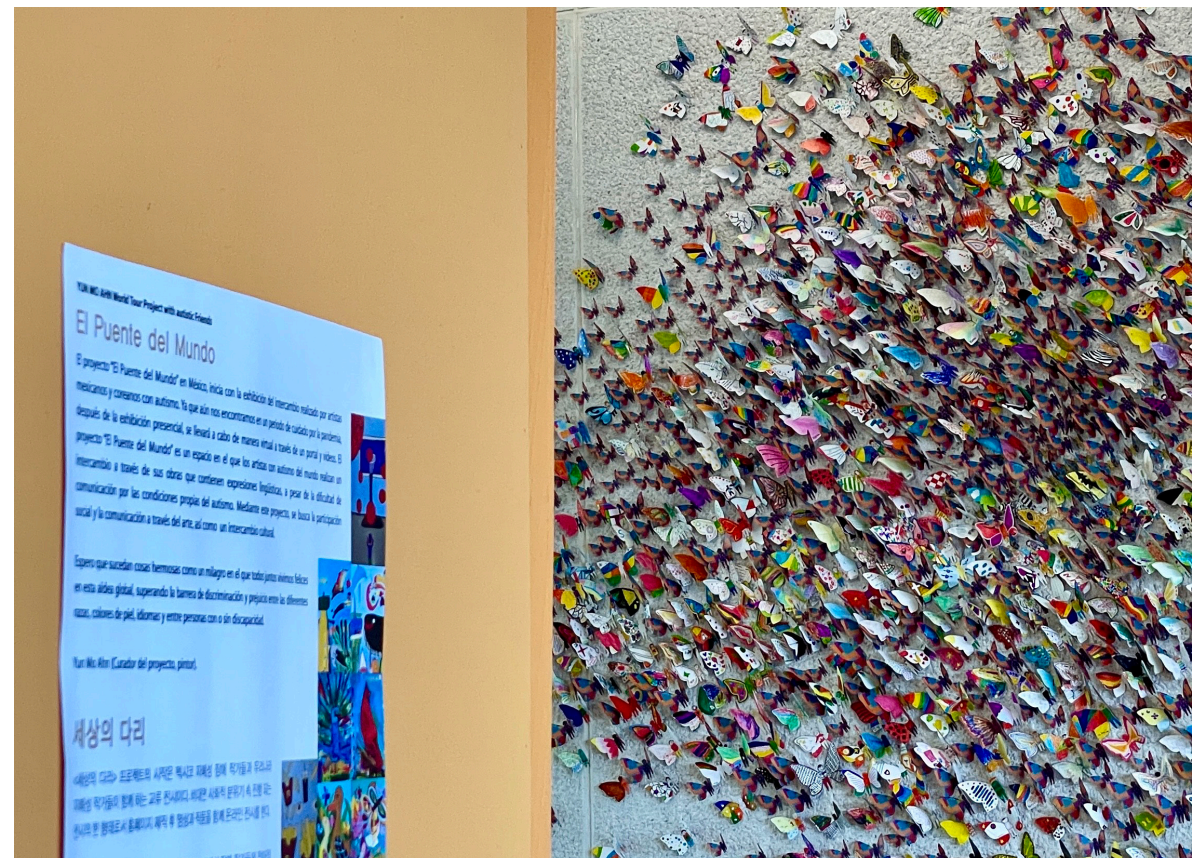
〈나비가 되다〉
워크숍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송동호

그리고 세계 4대 문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세르반티노 축제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는 올해 개회 5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한국을 초대했다. 세르반티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멕시코에서 한국문화 홍보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 근 10년간 한국의 문체부와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멕시코 문화부 내 세르반티노 조직위원회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오며 4차례 이상 주빈국 유치를 시도하였고, 2021년 5월 주빈국 초청 수락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코리아시즌 사업과 문화원의 협업을 통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과나후아토 도시 전역에 지정된 공연장에서 한국 무형유산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북청사자놀이, 탈춤, 부채춤, 남사당놀이, 판소리 심청가부터 K-pop 아이돌 KARD의 공연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코리아시즌 사업의 협력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혁신을 잘 보여주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멀티미디어 전시 체험관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나비가 되다〉 및
〈세상의 다리〉
개막식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송동호

나는 축제 기간 중 문화원의 기획으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유명 중견작가 안윤모 작가의 전시 준비를 보조했다. 13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폐성 아동들과 비장애인 아동들의 그린 나비그림을 모아오며 진행해온 프로젝트 〈나비가 되다〉와 한국 자폐성 작가들과 멕시코의 자폐성 작가들의 회화 작품을 전시하여 축제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차별과 반목을 멀리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세상의 다리〉 전시 준비를 함께했다. 과나후아토 국회의사당 1층 벽 한 면에 안윤모 작가가 세계 각국의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수집해온 나비 그림 2,000장을 붙이는 수작업을 진행했고, 워크숍의 일종으로 자폐성 아동 교육 시설에서 온 어린이들과 함께 나비를 그리는 프로그램 사진촬영 및 통역을 담당했다. 세르반티노 축제 준비를 도우며 한국에서는 익숙해서 느낄 수 없었던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 예술성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나비가 되다〉,
〈세상의 다리〉
전시장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송동호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으로 주멕시코한국문화원에 파견되어 4개월간의 인턴십 기간을 마무리하며,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옆에서 도와준 한국문화원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여러 행사 진행을 도우며 적지 않은 인연들을 만들었으며 파견 기간 동안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국 문화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원 직원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멕시코 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며 건승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06

시야를 넓힌

폴란드에서의 4개월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이유진

나는 국제기구 및 산하 재단에서 근무하며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한국 음악가와 호주 음악가의 음악 협업을 주도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고 음악으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 모습을 보고 국제문화교류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보게 되었다. 나는 국제 문화 예술 교류를 해외에서 경험하고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여겨 지원하였고,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국과 비슷한 역사와 정서를 가진 나라이다. 폴란드 내에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0년에 개원한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위치하고 있다. 폴란드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종합 축제인 <코리아 페스티벌>, 폴란드 내 최초의 독자적인 한국영화제인 <바르샤바 한국영화제>, 한국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한국문화의 밤>, 다양한 분야의 한인 예술가 초청 공연, 케이팝(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폴란드에 알리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학당 한국어, 태권도, 한식, K-POP, 국악 등의 한국문화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크로스컬처 페스티벌(Festiwal Skrzyzowanie Kultur)> 초청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을 공동 개최하였는데 해당 공연 업무 지원이 나의 주요 업무였다. 바르샤바 <크로스컬처 페스티벌>은 폴란드 문화유산부가 후원하고 바르샤바 시청이 주관하는 동유럽 최대 월드 뮤직 페스티벌로, 이번 축제에는 현대적 한국 음악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현지 축제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공연 담당자 및 보도 매체와 의사소통하면서 공연 업무를 지원했다. 또한, 공연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홍보 업무를 진행하였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 Poland

소재지
바르샤바 Warszawa, Poland

설립연도
2010

홈페이지
<https://pl.korean-culture.org/ko>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출처 : Radek Zawadzki,
Stoleczna Estrada

파견자 소개

이유진
leeyoujin.eugene@gmail.com
국제기구 및 산하 재단에서 근무하며 국제교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22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서 공연, 영화제,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업무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국가를 문화예술로 잇는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9월 11일에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Palace of Culture and Science) 내 위치한 드라마티치니 극장(Teatr Dramatyczny)에서 경기 시나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선보였다. 1부에서는 '대취타 역(易)'으로 서막을 연 후, 민요 '정선아라리',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강원도아리랑'과 '거문고산조', '이수대엽', '편수대엽'을 들려주었다. 2부는 백남준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인 '디오니소스 로봇'을 선보였다. 폴란드 관객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국악이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공연이 끝나자 연주가들을 향해 끊임없는 기립 박수를 보냈고, 현지 관객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도 앙코르로 화답하였다. 해당 공연은 국내외 매체에 다수 보도되며 주목 받았다. 폴란드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부터 현대적인 음악 레퍼토리를 선보임으로써 한국 음악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린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출처 : Radek
Zawadzki,
Stoleczna
Estrada

2022년 9월 21일부터 28까지 문화과학궁전 내 키노테카 극장 (Kinoteka)에서 열린 <제8회 바르샤바 한국영화제>에서는 현장 운영 업무를 지원하였다. <바르샤바 한국영화제>의 개막작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선예매로 전석이 매진되어 추가 상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21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에릭 오(Erick Oh) 감독의 '오페라(Opera)'가 최초 공개되고 한국 단편 문학 프로젝트인 '무녀도'가 초청되는 등 다양한 부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바르샤바 한국영화제>에서는 행운의 좌석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관객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현장 이벤트 운영 및 소셜미디어 홍보를 지원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한국의 최신 흥행작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까지 모든 영화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보러오는 폴란드 관객들도 있었다. 그들의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담긴 생생한 관람 후기를 듣고 있자니 외국에서의 한국 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바르샤바
한국영화제>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유진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서는 매달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9월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 명절 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세데카 재단 어르신 초청 추석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 시식, 전통공예 체험, 전통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한 어르신들은 처음 접한 한국 문화를 흥미로워하셨다. 10월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하여 <한국문화상자> 특별전을 개최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였다. 한글날과 한복의 날을 기념하여 민속박물관 방품 및 <한복 워크>, <한글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SWPS대학교 한국학과 개설 1주년 기념으로 한국학과 학생들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운영 업무를 지원하였는데 행사 전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한복 전시와 한복 체험 행사,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민화 컬러링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한글날 기념행사에는 한글 관련 소품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연령층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현지 전시 관련 문화기관을 조사하여 협력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갤러리, 시각예술 분야 페스티벌과 폴란드 내 갤러리를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그단스크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Gdansk)나 코페르니쿠스 예술 축제(Copernicus Festival) 등 폴란드 예술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한국 작가들과 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 제안서와 추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11월에는 현지 만성절을 기념하여 한국 납량특집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행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행사에 맞는 테마 공간과 포토존을 기획하였으나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 근무하며 공연, 영화제,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폴란드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현지의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 폴란드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는 알 수 없었던 문화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며, 해외 문화예술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또한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릴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재외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과 해외 타 국가를 문화예술로 잇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한다.



민속박물관 방품
및 한복 워크 행사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유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정희영

내가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오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다. 지원서 제출 마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남겨두고 '지원 국가' 칸에 원래 적어놔던 나라를 지워버리고 인도네시아를 적어 제출했으니까. 그때의 내 선택에는 정확한 이유를 댈 수 없다. 그저 한 번씩 강하게 내리꽂는 직감이 인도네시아를 가리켜 그걸 따라 오게 된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에서 제일 처음 맡게 된 과제는 번역 업무였다. 현지 신문에 한국 관련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업무였다. 신문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는 참으로 다채로운 나라였다. 세계 최대의 섬나라였으며, 인구의 87%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인종과 지역에 따라 분포도가 다양한, 문화적 및 종교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살아본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나라였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택시 안 라디오와 가게에서 흔하게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느 백화점을 가도 한국 음식점은 빠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문화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매 순간 체감할 수 있었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영) Korean Cultural Center
Indonesia

소재지

자카르타 Jakarta, Indonesia

설립연도

2011

홈페이지

<https://id.korean-culture.org/ko>

파견자 소개

정희영

jheey93@gmail.com
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자아와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스태프로 근무를 했으며,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교류 업무를 지원하였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걸작이라 불릴만한 장편영화를 만드는 것이 인생목표이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살이와 번역 업무가 익숙해질 때 즈음에 나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문화원의 여러 행사에 직접 촬영을 나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터라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려니 뭘 찍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하는지 바로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처음에는 헤맸지만, 차차 여러 행사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며 다시 영상과 친해졌다. 그리고 매일 한국문화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내가 만든 영상의 조회수가 조용히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남몰래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다.

영상 편집 외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혼자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한국영화 상영회 및 토론회>였다. 한국 콘텐츠 홍보를 목적으로 상영회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영화 관람만으로 끝내기엔 아쉬워 토론회를 접목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회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하여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유형 맞추기 게임을 진행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복 입고 명소 방문 행사 영상 스틸샷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 교류 신진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정희영



해당 행사에서 상영할 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영화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취향은 한국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알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인니영화제>가 있었다. 영화제 업무를 지원하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성과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관객들은 무거운 사회/역사 영화보다는 공포 영화 혹은 로맨틱 코미디나 감동적이고 잔잔한 스토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뚜렷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파파로티>를 선정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관람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좋은 반응은 적극적인 토론으로 이어졌고, 행사를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수많은 걱정들이 무색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파견을 통해 나 또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한국문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놓쳐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문화원 수강생들이 선보이던 한국전통 부채춤의 화려한 아름다움, 부산국립국악원 공연에서 보았던 휘몰아치는 사물놀이의 흥겨움, <K-마에스트로>에서 들은 판소리의 절절함은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문화의 힘과 매력에 다시금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리고 생소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눈빛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공연과 전시에 박수를 보내주었던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모습을 통해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었다.

부산국립국악원 공연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정희영

<한국영화 상영 및 토론회>에서 우승팀 선물 증정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정희영



어느 순간부터 한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튜브에는 너도나도 한국문화를 찬양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지금의 내 또래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서방의 문화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최고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찾아들고 다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정체되는 순간이 온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문화교류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마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인니영화제> 기자회견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정희영



멕시코에서의 4개월, 전반적인 성장의 기회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조은지

멕시코 북부 연극에 대한 석사논문을 준비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과연 내가 멕시코에서의 어떠한 경험 없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은 직접 멕시코로갈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결국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초반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전문인력의 범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즉, 그 걱정은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전문인력이란 문화 교류를 위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하였고,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내가 참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나의 연구를 퍼포먼스와 정치적 예술활동까지 넓히고자 하기에, 연극, 퍼포먼스, 정치적 예술 활동과 같은 나의 관심분야는 직접적 경험을 하는 것만큼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으며,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문화 교류를 할 때 좋은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신청할 때, 나는 전문인력의 범주에 연구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나의 개인적 경험이 좋은 연구 자료가 되어 하나의 유용한 결과의 내어 이 분야와 관련된 또 다른 파트의 사람들과 서로 상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사업에 신청했다.

인턴십을 했던 기관은 <세르반티노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라는 국제적인 축제와 <멕시코 뿌리음악 축제(Música Raíz México)>라는 전국단위의 축제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세르반티노 기관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성이었다. 두 축제 모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문화예술을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달랐으며, 젠더적·민족 공동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축제의 고유한 성격을 업무 중에 발견할 수 있기도 했다. 다소 관찮은 가격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부담가지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음악축제, 국제적 예술축제 이외에도 단일극 행사와 같은 작은 행사들도 많이 진행하는 듯 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두 축제의 행정업무를 맡거나 통번역을 하는 역할이었으며 내가 맡았던 업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술행정 분야에서의 업무였다. <세르반티노 축제>의 경우, 참여자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었기에 축제 1달 전부터 각 예술가들의 스케줄을 설정하고 그들의 일정에 맞춰 숙소와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과나후아토(Guanajuato)의 세르반티노 축제와 순회공연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고 정리하였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
(영)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FIC)

소재지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설립연도

1953

홈페이지

<https://festivalcervantino.gob.mx>

파견자 소개

조은지

trista368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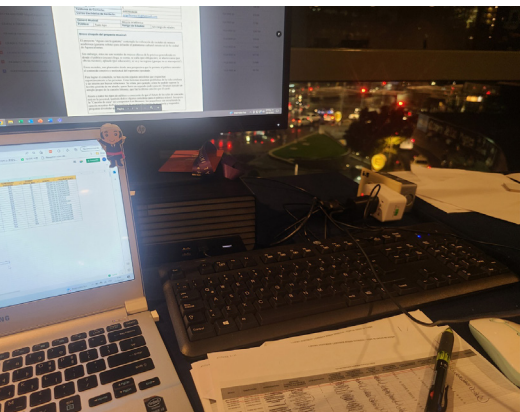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대학원 유럽어문학과에 재학 중이며 중남미 연극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멕시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멕시코 북부 연극, 즉 연극을 통해 멕시코 북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논문에서 다루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퍼포먼스, 정치적 예술활동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멕시코 뿌리 음악 축제>에서는 참여자들과 참여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파일로 취합했으며 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확인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한 영수증을 확인하였다. 일을 직접 하고 다른 동료들의 일을 보면서 공연 하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터 행정 처리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힘쓴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공연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련 담론장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예술가와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담론장은 관객과 예술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만들어졌다. <세르반티노 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세르반티노 피치(Cervantino Pitc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은 하루에 8팀씩 이틀간 자신의 공연에 대한 기획을 프로그래머들과 다른 예술가 동료들 앞에서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실제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었으며, 다른 예술가와 축제 관련자들과 교류를 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르반티노 오픈 갤러리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은지



〈멕시코 뿌리 축제〉행정 업무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은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국제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소통과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문화든 경제든 국제 교류를 할 때,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하다보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매개하는 예술행정 일을 하거나 기획자들은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명확하게 소통하려 하며 종이나 텍스트로 모든 상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이 현지인들 사이에서의 소통만큼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문화 교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타국가 출신의 상대방과 소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 한국과 중남미는 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다른 문화적 특성에 의해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업무처리를 할 때 시간을 매우 잘 지키며 그와 동시에 업무 처리 또한 빠르게 하는 편이다. 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거주했던 친구들의 경험에 따르면, 다른 국가 중 한국만큼 빠른 일처리를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렇다보니, 한국식 일하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업무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이해는 그 국가의 국민들, 곧 관객들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문화 교류를 위한 일정이 생길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양국 간에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교육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국가의 관객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멕시코시티에서 영국 예술가인 킹스 싱어즈(The King's Singers)의 공연을 확인하기 위해 베야스 아르떼스(Palacio de Bellas Artes)에 갔을 때 깨달을 수 있었다. 6명의 성악가들은 공연 중 인사부터 곡 설명까지,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인어를 준비해왔으며, 심지어 멕시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그들의 공연은 성공적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관객들과 잘 어우러져 놀았음을 그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가끔씩 준비해온 스페인어를 실수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 했으며 오히려 그들이 멕시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감동하였다.



LDP(Laboratory Dance Project)
팀과 함께
(통역업무)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은지

세르반티노 기관에서의 인턴 생활은 업무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면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나”라는 사람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보다 뚜렷해졌다. 우선 나의 전공과 관련하여, 중남미 특히 멕시코의 공연예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국내 축제부터 아시아 축제까지 취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세르반티노 기관에서의 인턴ships을 통해 왜 아시아 문화 축제 중 규모가 큰 것이 없을까, 아시아 국가들의 가시적인 문화교류가 부족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을 꼭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이 연구를 토대로 다른 대륙에서의 큰 규모의 축제와 아시아의 문화 축제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연구가 될 것이며, 유목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에 귀국한 이후부터 계속 계획하고 있으며 언젠가 이루어낼 나의 연구가 실제 문화 교류에서 좋은 토대로 작용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세르반티노 축제〉, 〈멕시코 뿌리음악 축제〉팀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은지



수중 지표*로 지도 그리기

드 아펠 아트센터 이미지

*수중 지표(Underwater indicators)는 드 아펠 아카이브의 심연을 헤엄치는 꼬리표들이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거나 기존 보유 자료의 내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독자로 상정되는 정보 입력자의 판단에 따라 붙여지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숨겨진다. 이러한 방식은 잠정적 독자들이 자료와 연관된 열쇳말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파견자는 알지 못하는 새, 익명의 독자들이 남긴 지표들을 따라 풍요로운 아카이브의 바다를 만끽하며 이야기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었다.

드 아펠은 지난 1994년 당시 디렉터였던 사스키아 보스(Saskia Bos)에 의해 만들어진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Curatorial Programme)>을 통해 매해 6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공동 세미나, 워크숍, 필드 트립 등으로 지식과 경험을 함께 쌓고 전시를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기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이들의 활동으로 기관의 연간계획이 구체되기도 한다. 2020/2021, 2022년도 프로그램의 경우, 팬데믹 사태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5명과 4명으로 줄고 프로그램 기간 역시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로 조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올해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외파견 프로그램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파견기간의 조정이 있었고 파견기간인 8월-12월이 마침 올해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9-11월과 겹치게 되었다. 덕분에 기관의 임시 구성원으로서 전시 준비, 진행, 운영 과정,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 및 개선 과정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드 아펠
아카이브 전경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
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이미지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드 아펠
(영) de Appel

소재지

암스테르담 Amsterdam, Netherlands

설립연도

1975

홈페이지

<https://www.deappel.nl/>

파견자 소개

이미지

miji0601@gmail.com
시각적 사고를 가진 연구자로서 낯선 관계와 뒤얽힌 맥락, 번역된 언어에 관심을 가진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예술이론을 공부한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지층의 이동과 횡단(trans/cross)으로 인해 생성되는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고유한 생각, 이미지, 언어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직되는 새로운 조건을 관찰하며 개별적인 존재들의 연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참여자 4인의 공동기획전 <super feelings>는 네 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한 명의 작가에 집중한다. 각각은 설치 및 철거를 위한 단 며칠만을 사이에 두고, 열흘씩 운영된다. 모든 전시는 퍼포먼스로 그 시작을 알리며 전시장의 창을 뒤덮은 푸른 필름과 모래더미를 품은 채 이루어진다. 이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작가, 요타 몸바타(Jota Mombaça)의 작업 재료이자 이후 이어지는 세 편의 전시에 남겨진 잔여물로서 존재하게 된다. 두 재료는 이어지는 에피소드들 사이의 시각적 교집합을 자아내며 전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시장에는 전체 전시의 골격을 이루는 동명의 책이 놓여 있다. 출판물에는 전시를 기획한 네 명의 큐레이터가 선별한 텍스트와 함께, 다수의 필자들에게 의뢰한 시, 산문, 사진,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전시의 작업, 푸를 비늘과 언덕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함께 읽힐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장치로서 작동한다. 파견자는 드 아펠에서 20여년 넘도록 근무하며 아카이브를 수집, 보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넬 동커(Nell Dunker)의 제안과 2022년도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참여 큐레이터 4인의 지지로, 드 아펠 아카이브에 보관될 네 편의 '목격자 보고서(witness report)'를 작성했다. 네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전시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작성한 해당 글은 파견 활동이 종료된 뒤, 드 아펠 웹과 연동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출판될 예정이다. 또한 파견자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드 아펠 아카이브에서 시간을 보내며 읽고 만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짧은 글 역시 곧 아카이브에 수집될 예정이다.



드 아펠 아카이브
구석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이미지

파견기간 동안 얻은, 가장 의미있으며 가치 있는 것은 드 아펠 팀의 환대와 따뜻한 응원이었다. 그들과의 만남, 그리고 NEXT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길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나는 이 푸른 비늘 속에서 이야기가 다른 가닥(strands)을 타고 유전되고 분화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다 얼마 전 읽었던 세포시계에 대한 글을 떠올린다.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시계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telomere)는 염색체의 말단 부분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끝'(τέλος, telos)과 '부위'(μέρος, meros)의 합성어이다. 유한한 길이를 지닌 텔로미어는 세포가 복제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소실되고 결국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 된다. 발화와 동시에 점멸하는 등불과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이야기의 숙명을 세포의 생물학적 고리와 순환에 빗대어 상상해본다. 말하자면 이 몽환적인 구전의 경험은 나의 가닥을 타고 일련의 보이지 않는 절편으로, 이야기의 유한함에 대한 생각으로, 염색체의 세포 구조를 빌어 그려낸 감각적인 도식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Witness report, super feelings episode 2: Paola Siri Renard - what will you be then Oneiroi? - glamour, 「이야기의 미세 절편」 중.

드 아펠 사무실
구석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이미지



드 아펠 전시장
Aula(강당) 전경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이미지



국제
문화
교류

전문
인력
집중
양성
과정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빛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 실습경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채영

창작자와 창작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조력자로 활동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던 때에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을 접했다. 돌이켜보면 PC 화면에서 잠시 스쳤을 뿐인데 아무래도 ‘문화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표현에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다. 특히 당시 ‘문화’란 바다 한 가운데 나룻배 위에서 나무젓가락 하나 들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을 피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문화’와 ‘교류’, ‘전문인력’이 함께 놓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참여 동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업계 명성답게 성황리에 열렸고 또 닫혔다. 총 49개국 268편의 장·단편영화를 온·오프라인 즉,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부천시청 잔디광장, 어울마당, 판타스틱큐브, 한국만화박물관, CGV소풍, 메가박스 부천스타필드 시티 등에서 상영하고 〈영화감독의 마스터클래스〉 및 〈GV〉, 〈괴담캠퍼스〉, 〈B.I.G〉, 〈비온드리얼리티〉, 〈7월의 할로윈〉 등 관객 참여 기반 세부 프로그램 구성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했다.¹

¹ 제26회 BIFAN 감사인사 및 경과보고, BIFAN, 2022.07.17.배포 및 보도.
출처: BIFAN공식홈페이지, http://www.bifan.kr/webzine/news_view.asp?pk_seq=85701&sc_board_seq=12&sc_num=518&sc_top_cond=all&actEvent=view&page=2&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환상영화학교〉 현장
속 실습 모습 1
*출처: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집중양성과정
참가자 김채영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디지털노밸류2022:씨클
(영) 26th BIFAN / DIGITAL
NOVEMBER2022:Circle

소재지

부천 Bucheon, Republic of Korea

설립연도

1997

홈페이지

<http://www.bifan.kr/>
<https://beyondreality.bifan.kr/featured/digital-november>

파견자 소개

김채영

imcyee00@gmail.com
학교에서 순수미술과 법을 공부했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환상영화학교〉 현장
속 실습 모습 2
*출처: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집중양성과정
참가자 김채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내 VR사업팀과 주한프랑스대사관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수동 소재 에스팩토리에서 3회째를 맞은 〈디지털노밸류2022:씨클〉 또한 그랬다. ‘전시 행사’라고 분류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다채로운 관객 참여형 전시 행사인 〈디지털노밸류2022:씨클〉은 각각 국제적 영화제에서 각광받은 이력이 있는 VR작품 4편을 중심으로 그 외 VR작품 7편과 6편의 영화 상영, 토크 세션, 퍼포먼스, A.I. 포토월 이벤트를 번외 구성으로 하여 꾸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화 〈마인드 유니버스〉의 김진무 감독과 김경선 프로듀서, 전자음악 뮤지션 해미클레멘세비츠(Remi Klemensiewicz)와 김익명 그리고 DJ 에모시(EMOSI), DJ K.O.P. 32와 천명한 감독 그리고 표혜인 무용가, DJ 그레이스 김(Grace Kim)이 현장에 함께했다.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참으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일과 함께 만났다. 한 명의 사람은 백 권의 책과 같았던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런데 한 번 열어보기만 한 책은 환상을 남기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힐끔거리며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었고, 때로는 눈을 감아야 했으며 어쩔 땐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되던 와중에 잠시라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 하나 하나 잊지 않고자 한다. 특히 현장 속 흐름을 지키고자 애쓰던 모습들에서 얻은 창작자와 창작물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다는 배움을 고전문학 한 권 거듭 꺼내어 보듯 끊임없이 곱씹고 마음 한편에 여운을 간직하며 앞으로 겪게 될 일상의 원동력으로 삼아보려 한다. 그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일은 물론 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디지털노밸버
2022:써클〉 행사
현장 속 실습 모습 1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채영



〈디지털노밸버
2022:써클〉 행사
현장 속 실습 모습 2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채영

02

국제문화교류 실습,

미래의 탄탄한 기반이 되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박주영

영화, 흠어진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

영화제는 제게 늘 중착지였습니다. 영화를 전공하며 제작한 작품들이 영화제를 가거나 하는 방식으로만 저는 영화제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난 후, 다양한 문화들이 오가고 또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영화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역할은, 흠어져있는 문화를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제는 이러한 영화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참가자로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VR 사업팀에서 4개월간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로, 매년 새로운 시도를 더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세계 영화제 중 최초로 시리즈 영화상을 기획하여, 급변하는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영화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색깔이 뚜렷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 매년 새로운 영화들이 제작의 기회를 마련하고 파트너를 찾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부천 시민, 일반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아시아의 주요 XR 거점, <비온드 리얼리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XR 부문 <비온드 리얼리티>는 아시아의 주요 XR 거점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와 기술이 아름답게 결합한 VR 작품부터, 환상적인 프로젝션 맵핑까지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XR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이후에도 프랑스대사관과의 협업전시 <디지털 노뎀버>, 베니스 영화제와의 협업 행사 <갤럭시 네트워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과학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관객들에게 이머시브 경험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영) 26th BIFAN

소재지

부천 Bucheon, Republic of Korea

설립연도

1997

홈페이지

<http://www.bifan.kr/>
<https://beyondreality.bifan.kr/featured/digital-november>

파견자 소개

박주영

juyoungp0525@gmail.com
예술의 역할은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결합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표현방식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노뎀버> - AI
이미지 제작 체험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사업 참가자
박주영

<비온드 리얼리티>와의 첫 프로젝트, <대한민국과학축제>

제가 처음 참여한 프로젝트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대한민국과학축제>였습니다.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는 시도들이 돋보인 행사였습니다. 저희 VR 사업팀은 과학을 주제로 한 VR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공간 답사를 하고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R 상영의 특수성과 전반적인 행사 진행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노뎀버>, 본격적인 기획을 맞보다

제가 막 팀에 합류하였을 때, <대한민국과학축제>는 이미 기획이 끝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 진행부터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프랑스대사관과의 <디지털 노뎀버>는 기획부터 실제 행사까지 참여하여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뎀버>는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과 5대륙 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문화축제입니다. 게임, 디지털 아트 등 폭넓은 종류의 디지털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이며, 한국에서는 <비온드 리얼리티>와 함께 XR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디지털 노뎀버>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다른 컨셉과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올해도 새로운 기획을 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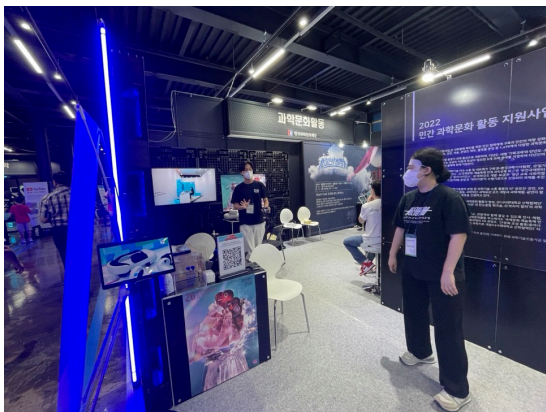
프로젝트 리더를 중심으로 팀원 모두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며 컨셉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구축한 <디지털 노뱀버>의 컨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번이고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고, 협력기관들이 더해지기도 하며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획은 늘 시행착오와 수정의 과정임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 대사관 측과의 조율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해도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합치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모여 더욱 탄탄한 기획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기획하고, 담당하였습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어 디지털 방명록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도 선호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으나, 막상 너무나 반응이 좋은 모습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걱정하던 부분을 오히려 참여자들은 좋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기획과 실현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티스트 공연, 영화 상영, GV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몇 달간 준비했던 행사가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돌아해보면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지만,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종류의 툴을 익히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업무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았다는 감각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노뱀버>
- 현장 사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사업
참가자 박주영

<대한민국과학축제>
현장사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사업
참가자 박주영



아시아 XR 조인식

아시아 XR 조인식은 4개의 페스티벌(<가오송영화제>, <비온더프레임>, <비온드 리얼리티>, <샌드박스 이머시브 페스티벌>)이 모여 ‘아시아 XR 신진 아티스트 육성’과 ‘상호협력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네이밍부터 행사 진행까지 참여하며 시민참여 행사가 아닌, 언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부딪히며 배운다, <갤럭시 네트워크>

<디지털 노뱀버>를 준비하는 동시에 <베니스영화제>와의 협력 행사인 <갤럭시 네트워크>의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갤럭시 네트워크>는 <베니스영화제>를 중점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VR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행사입니다. <비온드 리얼리티>가 국내 유일의 파트너로 선정되어 관련 기획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노뱀버>로 기획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직접 컨셉을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성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접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서류를 작성하며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팀장님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노력하였으나, 구성안을 짜고 내용을 배치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획안을 작성하는 능력의 뼈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했던 팀원들과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모여 3가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뿐만 아니라 기획 및 준비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XR 조인식
현장 사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사업
참가자 박주영



03

20년의 전통과 새로운 1년으로 이뤄진 소리의 만남: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서영

국악연주를 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다양한 전통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전통의 힘은 우리의 자존이며 지속 가능한 가치로서 위상이 높으니, 한국의 고유한 음악적 가치를 세계로 알리는 일은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무형의 재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와 문화 사이를 이어 국가 간의 교류를 넓히는 데 일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 여기고 있었기에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를 통한 교류사업에 적합한 인재는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 사업의 실제 현장을 경험해 현실을 마주 본 후, 그 현장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준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NEXT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며 수많은 행사 및 축제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을 찾고자 활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더늠(20th+1)’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판소리 용어인 더늠은 ‘더 넣다’라는 뜻대로 예술과 예술가 정신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고 그 해답을 작품으로 표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올해 축제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축제 일정을 열흘로 연장하였고, <포커스 온 더늠(Focus on 더늠)>, <오래된 결: 전통(Being Heritage)>, <온고이지신(Young & Frontier)>, <너머의 감각: 컨템포러리(World Music Today)>, <소리 인터페이스(Special & Popular)>, <헬로우! 패밀리(kids & Family)>, <글로벌 랩(Glocal lab)>이라는 총 7개 섹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였다. 주요 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부안 채석강,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등 외부 공간에서 수많은 공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해외 5개국의 월드뮤직과 수궁가, 적벽가 등 명창과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 공연 및 합주와 지역공연 등 총 76회의 공연이 울려 퍼졌다. 더불어 기존의 실외 장식 및 야외 프로그램을 줄이고 실내 공연을 확대하면서 작품 집중도를 높여 작품 중심 예술축제로의 모습을 강화했다. 실내 공연을 확대하면서 작품 집중도를 높여 작품 중심 예술축제로의 모습을 강화했다.

파견기관 소개

기관명
(국) 전주세계소리축제
(영)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소재지
전주 Jeonju, Republic of Korea

설립연도
2001

홈페이지
<https://www.sorifestival.com/>

파견자 소개

정서영
yaho0822@naver.com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통번역학이라는 언어 분야를 전공했다. 살사와 탕고 등 여러 나라의 독특한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져 스페인과 멕시코에 유학을 다녀왔다. 전공을 살려 문화와 문화 사이를 이어 국가 간 교류를 넓히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프로그램의 실습생으로서 나는 주로 슬로바키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대만 그리고 폴란드 5개국의 코로나 동향을 살펴보고, 입국 절차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입출국 시 방역절차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 수행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여, 올해부터 다시 해외 공연팀을 전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있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다. 그렇기에 실습 기간 동안 하루에 수차례 방역지침에 관한 기사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영어로 번역해두는 업무는 매우 중요했으며, 내가 공들인 업무 중 하나였다. 또한 축제의 홍보책자와 팸플릿의 오류 사항을 검토하거나 공모 글을 작성해 소리축제 홈페이지에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축제 기간 동안 스태프들을 대표해 로드 매니저로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온 소리축제 해외 관계자들 및 아티스트들의 공항 마중과 전주로의 인솔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해외 아티스트와 소리축제 스태프의 통역 및 현장의 스태프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제작과 실행의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지, 또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하여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스태프 단체사진
*출처 : 전주세계소리축제

4개월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의 실습경험은 그 자체로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다. ‘판소리’라는 전통을 이어가며 동시에 새로운 소리를 창조하고 알리는 그 과정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이 넘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한국 음악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만든 대표적인 요인인 ‘BTS’를 포함한 k-pop도 자랑스럽지만 역시 전통음악이 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국가 간의 교류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스스로의 능력을 기여할 생각이다.

개막식 리허설
중인 소리축제
스태프들
*출처 :
전주세계소리축제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기획팀
*출처 :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공연
<In-C>의 모습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참가자
정서영



국제
문화
교류

전문
인력
프로
젝트
지원

특별한 곳이 아닌 즐거운 곳을,

공감의 문화와 함께

2021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파견 조수빈

"여기가 아니라면 나랑 네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얘기해볼 수 있었겠어."

2021년도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발되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로그램팀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국제행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많은 업무량과 VIP 담당이라는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해야 할까, 영화제 밖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 않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담당 게스트가 해 주었던 저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국제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영화라는 같은 주제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며 그 경험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더 느껴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해주었다. 즐거웠다며 인사하는 게스트들을 영송하면서, 언젠가 스스로도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올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NEXT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첫 시도인 <Project TOMONI>를 기획하게 되었다.

‘함께’라는 뜻의 <Project TOMONI>는 전통이 어렵거나 특별한 것, 혹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팝업 이벤트다. ‘Daily Tradi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을 구성하는 의식주를 테마로 하여 현대의 일상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전시/한복/다과 공간을 통해 소개했다. 전시공간에는 도하, 미미달, 취프로젝트, 등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통매듭, 단청, 나전칠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요소를 일상에 접목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기존의 문화재 등을 활용한 전시와는 다르게, 디퓨저나 귀걸이, 키링 등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만져보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상품에 전통요소를 녹여낸 활용도 높은 작품들을 소개했다. 또한 작품 카드 내에 작가 정보, 설명 및 구매 가능 페이지를 QR코드로 넣어 행사 종료 후에도 해당 주소 등을 통해 체험 기회의 폭을 연장했다.

행사장소 소개

장소명

(국) 버스 랩
(영) Birth Lab

소재지

도쿄 Tokyo, Japan

홈페이지

<https://birth-village.com/lab/>

파견자 소개

조수빈

itsmesoob@gmail.com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마케팅, 기획,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분야를 공부했으며 이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등의 국제행사에서의 게스트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공감에 기반한 보다 양방향적인 국제문화교류를 목표로 도쿄에서 <Project TOMONI>를 기획 진행하였다.

한식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가을의 한식 디저트>를 선보인 다과 공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흑임자 꽃다식, 인삼편정과 등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다과 체험은 한식 디저트 전문점 연경당과 협업해 진행했으며, 각 다과상에는 메뉴 설명과 관람객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다과 카드를 곁들여 제공했다. 한복 공간에는 단하의 허리치마, 허사랑 한복의 뷔스티에 셋업, 소연한복의 봉황문 카디건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생활한복을 선보여 한복의 실용성과 매력을 소개했다. 전통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실용성과 스타일을 더한 다양한 브랜드를 자유롭게 시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여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보다 장기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굿즈를 활용한 각인 존도 추가로 운영했다. 히라가나-한글 변환표를 보고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작성하면, 그대로 나무 키링에 각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니 만큼 관람객들이 더 집중해서 참여했고 또 뜻깊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 기뻐다.

프로젝트 경험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 4개월 안에 해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업체 선정, 협력 요청 및 계약, 홍보물 제작 및 현지 업체 컨택까지, 네트워크 없이 이 개인으로 하나하나 진행해야 했다. 나아가 비자 발급이 늦어져 대관처 답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공간 구성과 배치를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욱 놓치는 부분 없이 2, 3안까지 체크해두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2일 간의 짧은 행사에 13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roject TOMONI>
전시공간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수빈

행사를 준비하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특별한 공간이 아닌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들어가기도 시도해보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다 넓은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했다. 한번 체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와 보고 싶은 즐겁고 지속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싶었다. 전문 분야 인력들과 함께하는 연구나 컨퍼런스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팝업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를 위해 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상품과 의식주라는 누구나 공감 가능한 테마를 기반으로 그 위에 전통문화요소를 접목해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가 다른 영화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즐거워해 주어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다.

이번 행사는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루는 현지 미디어 플랫폼들과 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한 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였다. 그들과 한국인 스태프들은 한일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에서 지나가다 들어온 방문객들도 많았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체험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들어오길 잘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방문객도 있었다. 공식 계정을 태그한 후기도 50건 가량 게시되었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한다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도 다수 받았다.

〈가을의 한식 디저트〉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수빈

한복 피팅 룸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수빈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일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갔다. 이는 다수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기대, 일본 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후속 국제 문화교류 프로젝트 진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안하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K-POP에 한정되어 있던 한국문화의 인식을 넓히고 일방향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체험형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교류란 양방향적인 것이므로 공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며, 홍보가 아닌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한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의 문화를 알리겠다는 일회성 기획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지속적인 기획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한글이름 각인 프로그램〉
*출처 : 〈Project TOMONI〉 인스타그램

영화제 인턴이 영화제를 직접 기획하기까지

2021년 강릉국제영화제 파견
조아란

개막작 상영 전 스피치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아란

넥스트 참여배경

20살이 되어 꼭 해보고 싶었던 락페스티벌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막연히 페스티벌 기획자라는 꿈을 10년 가까이 안은 채 살아왔다. 학부 시절에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행사 자원활동과 파트타임으로 그 꿈을 천천히 이뤄나가고 있었다. 학부 졸업 후 독일로 석사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모든 페스티벌과 행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자연스레 기획자라는 꿈을 서서히 놓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해 석사 졸업 논문을 쓰면서 석사 과정을 거의 마쳐가는 와중에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제문화교류에 관심있고 국제적 경험과 외국어 구사 등 NEXT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과 부합하여 지원했고, <강릉국제영화제> 초청팀에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음악 페스티벌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강릉국제영화제> 해외 초청팀에 합류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영화제를 준비하며 해외 게스트들을 초청하는 업무를 맡았다. 실습기간 중에 각자의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선 이번 영화제에서 실습하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영화제와 유사한 이벤트를 기획해보고 싶었다. 또한, 석사 유학 중 인턴십을 위해 체류했던 네덜란드가 한국 문화 교류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네덜란드에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네덜란드에서 한국 영화제를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NEXT 후속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행사장소 소개

장소명

(국) 크라이테리온
(영) Kriterion

소재지

암스테르담 Amsterdam, Netherlands

설립연도

1945

홈페이지

<https://www.kriterion.nl/>

파견자 소개

조아란

chociocho@naver.com

창의적 콘텐츠들에 대한 애정으로
페스티벌,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기획해 나가고 싶다.

프로젝트 소개 및 추진과정

<K-Weekender>는 암스테르담 최초의 한국 영화제로, 한국 영화, 음식 워크숍 그리고 전시가 합쳐진 복합 문화 행사이다. 현지 시네마 공간 약 20곳을 컨택 한 후에 현지 유명 아트 시네마인 '크라이테리온(Kriterion)'과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보통 시네마들은 일 년 전부터 영화제 일정을 다 잡아놓기 때문에 협업할 시네마를 물색하기가 매우 힘들었기에 다음에 기획 할 때는 훨씬 더 긴 기간 여유를 두고 협업 상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이후, 현지 인맥이 많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함께 '잔치'라는 컬처 콜렉티브를 만들어 다양한 외부 업체들과 협력을 논의할 때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콜렉티브를 통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콘텐츠 및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했다.

맨 처음 단계이자 가장 중요했던 협업 시네마를 선정한 후 상영작을 선별하고 수급 작업을 시작했다. 상영작도 처음 피칭했던 컨셉에서 대대적으로 바꾸어 "We are angry but that's oka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 사람들의 화에 대해 선보였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화가 많고,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그 화가 왔고, 어떤 식으로 해소해나가는지. 그리고 자칫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한국인에게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지 등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과 비교하여 오랜 기간 교류가 많았던 일본이나 중국은 각자의 이미지가 잘 자리 잡았다. 그에 반해 한국의 어떤 부분을 내세워 흥미를 끌어볼까 고민한 끝에 이와 같은 주제 의식을 담아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고심하여 고른 작품들의 배급사를 찾아 연락을 시도했다. 영화를 수급하고 조율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영화제 기획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되었다. 음식 워크숍은 김치와 막걸리 워크숍을 기획하여 각각의 음식/음료와 관련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서울시 발효 공방 빗담에서 레시피 및 리소스를 지원받아 준비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전시는 현지 예술대학 출신이며 암스테르담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퍼포먼스, 영상, 그래픽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를 모아 전시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미팅으로 전시 내용을 정하고 크라이테리온(Kriterion) 전시팀 담당자와 함께 조율해 나갔다.

홍보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로만 진행했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홍보 재료로 썼다. 마케팅은 대상(청정원)으로부터 고추장소스 200여개 및 에코백 100개가량을 후원 받아 관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이어서 다양한 현지 매체와 현지 문화 예술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행사일이 가까워지면서 오프라인 홍보물(포스터, 브로셔,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시네마 외부 창문에 붙일 대형 스티커도 제작했다. 제작한 포스터는 암스테르담 내 아시안 마트, 한인식당 등에 배포하여 홍보했고, 대학가에도 부착하여 홍보했다. 스티커는 행사 약 일주일 전부터 행사장에 수시로 배치하여 홍보하였다.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총 7회의 영화상영 모두 예매율이 높았고, 그 중 2회는 매진이 되었다. 워크숍도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 되었고, 약 600명 이상의 인원이 <K-Weekender>를 다녀갔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오프닝 나잇> 행사를 열어 문화 예술 업계 관계자를 초대하여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하였으며 현지 대형 언론/웹사이트에도 노출이 되었고, 한국을 다루는 웹사이트의 인터뷰 요청도 있었다. 암스테르담 내 거주하는 한국 교민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흠어진 한국인 커뮤니티를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한국의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상(청정원)
협찬품과 행사
브로셔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아란

김치 워크숍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아란



향후 활동계획

후원이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년 2회 차 <K-Weekender>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우선의 목표이다. 그리고 <K-Weekender>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화교류 이벤트나 콘텐츠도 더 기획해 나가고 싶다.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암스테르담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목표이다. '한류'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보다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범위를 넓혀 나가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기획해 나가고 싶다.



크라이테리온
(Kriterion) 외관
*출처 :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조아란

20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성장 通 일지

NEXT STORY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발행인 정길화(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발행일 2022년 12월

기획총괄 교류기획부 교류기반팀

디자인 닷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Tel 02-3152-1764

Fax 02-3153-1787

www.kofice.or.kr

※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NEXT